

3 » 2014 조선일보 · QS 아시아 대학평가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37위

4 » 세월호 이후 대학가는



201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 개설과목 확인 : 5월 21일
- 수강신청 기간 : 6월 12일 ~ 6월 16일
- 등록금 납부기간 : 6월 17일 ~ 6월 19일
- 등록금액 : 1학점당 89,000원
- 납부방법 :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

총장선출 · 학장임명 · 교수임용방식 변화 “열려있다”

개교 65주년을 맞은 우리학교가 당면한 숙제는 상당하다. 정부주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대학정원조정부터, 지난해부터 이어온 재정위기 속 갈등, 교육여건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신문은 지난 15일 조인원 총장을 만나, 학내 문제를 비롯해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까지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지난해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차 공개된 ‘대학 행 · 재정발전계획안’에는 교수임용 보류, 강좌수축소, 대형강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대부분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번 학기 시행된 강좌 수 축소와 대형강의 확대에 대해 학생 사회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 대해 조 총장은 교육시설과 강의의 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총장은 “소형강의가 필수인 과목이 있지만, 대형강의로 진행 해도 무방한 과목 역시 존재하는 만큼, 온라인강의를 비롯한 적절한 강의운영을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 강의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강의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수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조 총장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구성원간 논의, 즉 ‘소통’을 제시했다. 다만 ‘소통’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의사결정과정에서 모두 총장만을 바라보는 현재의 대학구조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며, ‘분권’과 ‘책임’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장 중심의 대학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총장 선출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구성원의 의견에 “총장 선출제도뿐만 아니라 학장임명이나 교수임용 방식의 변화도 ‘열려있다’”고 말해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견해임을 내비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의결할 부분”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5면으로 이어짐

창간 기념 조인원 총장 인터뷰

권오은 기자 typhoon11@knu.ac.kr
정지호 기자 kjh99@knu.ac.kr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공동화’를 이유로 대학구조 개혁을 추진한 이후, ‘정원감축’

은 대학가의 뜨거운 감자다. 특히 재학생 수나 입학정원 모두 최대 규모인 우리학교의 경우, 정부정책이 아니더라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인원 찾기 노력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조인원 총장 역시 “정원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

때문에 교육의 질과 우리학교가 추구해온 학문적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적정선을 찾기 위해 조 총장은 “정원과 관련한 조사 · 분석팀을 만들고 구성원과의 공론장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총장은 “소형강의가 필수인 과목이 있지만, 대형강의로 진행

평화의 전당 무대, 안전점검 ‘D’ 등급

국제캠, 방화문 규정 잘 지켜지지 않아

김주환 기자
김윤철 기자 kycxellos@knu.ac.kr
강규연 기자 jennifer024@knu.ac.kr

평화의 전당 무대의 음향반사판이 이번 달 내로 철거된다. 이는 우리신문이 세월호 사건 이후 교내 시설 안전도 취재 도중 알게 된 것으로 평화의 전당이 2011년 말 받은 ‘정밀안전진단’ 중 ‘무대시설 안전진단(안전진단)’에서 부분 D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D 등급은 사용불가능 판정을 의미한다.

무대 천장에 달려 있는 총 6톤 무게의 음향반사판은 넓은 무대의 연주음이 천장으로 분산되지 않고 각석으로 골고루 뻗어나가게 하기 위한 시설로 지난 1999년 평화의 전당 완공과 동시에 설치됐다. 하지만 완공 후 15년 가량 지난 현재 안전사고의 우려와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계기로 철거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점검 세부 항목 결과에서는 반사판 이외에도 무대에 설치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음향 반사판은 이번달 내로 철거된다

모더나 천장으로 설비를 옮기는 데 쓰이는 와이어, 일부 조명 설비 등 60% 가량의 무대 설비가 C, D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의 전당 측 설명에 의하면 이들 설비 역시 노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객석을 포함한 평화의 전당 건물 자체는 관리팀이 2012년 1월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부분적

인 마감재 보수가 필요한 점을 제외하면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현행법상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리팀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4면으로 이어짐

신(神)이 되어 버린 사랑, 루미의 《마드나위》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④

신은희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진실한 사랑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녕 행복한 일이다. 수피들은 이를 ‘신(神)이 되어 버린 사랑’이라고 부른다. 루미의 《마드나위》는 ‘영적 탐구’라는 뜻으로 ‘영혼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편이다. 이 시집의 저자는 수피 시인 젤랄루딘 루미(Jelaluddin Rumi, 1207-1273)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마

드나위》는 루미가 훌륭한 작품이 아니다. 루미와 그의 영적 연인 타브리즈 삼스의 사랑과 영감으로 완성된 가작(사랑시)이다. 《마드나위》는 페르시아 고전문학의 정수를 이루고 있는 시집으로 ‘페르시아 꾸란’으로도 불린다.



루미는 이슬람 수피 문학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루미의 사상은 헤겔, 니체, 고테와 같은 서구 지성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1207년 루미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던 아프가니스탄 밸크에서 태어난다. 루미의 아버지는 당시 저명한 신학자, 법학자, 신비가로 ‘학자의 술단’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루미 또한 종교학자와 법학자의 길을 걷게 된다. 헛날 루미도 수피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인 ‘세이흐’에 추대된다.

어느 봄날 루미는 나그네 탁발 승 샌스를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은

루미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루미는 샌스와의 첫 만남을 ‘사람을 통해 신(神)의 현현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순간’이라고 회고한다. 루미의 신비체험은 환상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통한 신과의 합일을 의미한다. 루미는 샌스와의 영적 대화를 통해 그의 직관적 통찰력에 매료된다. 하지만 루미와 샌스의 만남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들의 우정과 사랑을 질투한 루미의 추종자들은 샌스를 우물가에 묻어 살해하고 만다.

▶7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배운 것,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비전”

김윤철 기자

개교 65주년을 맞아 대외협력처는 제 1회 경희 ‘웃는 사자상’ 공모전을 열었다. 이 공모전에서는 학술연구 · 사회공헌 · 문화예술분야에서 경희정신을 대내 · 외에 알린 학생 5명이 선발됐다.

이 중 사회공헌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민(국제학 2012) 양은 국제무대의 토론회 참가와 영어를 활용한 봉사활동 등을 토대로 ‘웃는 사자’의 의미를 살렸다. 이 양은 2013 Girls 20 summit Moscow’ 한국대표, ‘2013 ASEAN+3 Future Leaders for Water Chiang-Mai’ 한국대표, ‘2013 평창스페셜동계올림픽’ 아일랜드 선수단 통역 등의 활동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며 재능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나눠왔다.

또한 학교에서도 토론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다. 국제대학의 KIMUN(Kyunghee Model United Nations) 활동, 모의 G20, KDS(Kyunghee Debating Society) 등 활동 등이 좋은 기회였다.

그의 활동은 전세계적인 의제에 대해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의견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이 양은 ‘배워왔던 권리, 기회, 자유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노력이 어떻게 공유되고, 세상에 기여하게 될지 기대해본다.

알림

전문가 칼럼 연재

정지호 교수(사학)의
‘동아시아와 내셔널리즘’ ① » 6면



시선

사설

교수의회 서울지회의 시선을 경계한다

지난 13일, 교수의회 서울지회 명의로 된 이메일 한 통이 소속 교수들에게 전달됐다. '존경하는 교수님들께'라는 제목의 이 이메일은, 물론 제 구성원 단체의 내부 소식지 개념의 것으로서 그 자체가 성명서나 선언문과 같은 대내외적 영향력을 지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 '내부 소식지'는 교수 사회가 경희공동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대학주보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메일의 주된 내용은 지난 해 하반기에서부터 올해 상반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희공동체를 관통해왔던 우리학교의 당면과제들에 대한 것이다. 주로 대학본부 측이 그간 공연해왔던 굵직한 약속사항들의 이행여부 및 이행방안을 묻는 것이 주요 골자였던 바, 그동안 개별 의제들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던 대학주보 역시 적지 않은 부분에서 동의할만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해당 메일의 내용 중 일부, 특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

다. 해당 메일에서 교수의회 서울지회는 '평의원회 구성 가운데 우리 대학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수 대표의 수가 과반수가 안 되는 이유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소속 교수로부터 제기됐음을 밝히면서, '교수의회는 전체 교수님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유일한 공식기구지만 지금처럼 총장 선출권을 갖고 있지 못한 데다 21명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에서도 교수 대표가 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학당국에 대한 제도적 견제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런데 이같은 진단은 대학 구성원에 대한 협소한 인식을 내포한다.

대학평의원회의 존재의의는 대학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상호 간의 경제와 협의를 통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학 운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존재의의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각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구성원별 대표가 적정비율로 고루 참가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 공동체가 어느 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터전이기에 그러하다. 때문에 우리학교는 현재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대표 비율을 교수:직원:학생:동문=8:5:4:4의 비율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듯 그 어느 곳도 단독으로 과반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음으로써 특정 집단의 독주를 막고 과정적으로 구성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의회는 대학평의원회의 교수대표 비율이 95%에 달하는 서울대학교의 기형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대학평의원회 내 교수대표비율의 확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제 구성원 단체 내에서 '구성원의 목소리가 학교 측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것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이런 문제의식은 합리적인 설득과 토론, 혹은 다른 구성원 단체와의 협의 및 연대 등의 노력으로 이어져 '상방향적 소통의 과정을 통한 결과도출'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만일 교수의회가 이번 메일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타 구성원 집단에 대한 존중과 소통을 배제한채 교수집단

의 목소리만 확대하고자 한다면 그건 또 다른 폐권주의에 불과할 것이며 그들이 지적하는 '일방향적 소통'의 화살표 방향만 돌려놓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더불어 최근의 갈등국면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평의원회가 어느 특정 집단의 이해와 이익에 경도되어선 안 된다는 점 또한 명확해진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메일에서 노출된 교수의회 서울지회의 시선은 결국 대학평의원회를 교수들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아닌 것인지 우려된다 고 하겠다.

지난 하반기 이후 경희공동체를 덮친 갈등의 한복판에는 의사결정과정의 소수집중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소수집중화'의 주어를 바꾸는 것이다. 경희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더디 가도 함께 가는' 토론과 협의의 문화를 일궈내는 것,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원활한 의사결정과정이 이뤄질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드는 것이 경희의 밝은 내일을 위한 진정한 방법일 것이다.

대학과 정의, 그리고 기업화

세시봉

김주환
(편집장)

…내가 이 대학에서 배운 것은 정의의 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 거대하고 완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그저 포기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중략)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한다. 지금 대학엔 정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 7일, 자퇴를 선언한 중앙대 김창민 군의 선언문 중 일부다. 이 사건이 있기 약 4년 전쯤에, 고려대에서도 한 학생이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고 자퇴를 선언한 적이 있다. 두 선언의 동기는 거의 비슷하다. 더 이상 '대학답지 않은 대학'에 다니느니, 대학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갈수록 대학에서 정의는 사라지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구조 조정'을 명목으로 비인기 학과의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고, 대학의 정책에 반하는 구성원의 의견은 '정리해고'와 '징계'를 통해 묵살되며,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학생사회는 무관심 속에 점점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 굳이 기업에 인수된 대학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과 부대끼다 보니, 대학들도 기업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익을 쫓아 움직인다. 수많은 기업들이 '사람', '철학', '도덕'을 장황하게 강조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의 눈에 '채산성'이 떨어지는 비인기 학과나 인문학, 교양 과목은 파이를 갉아먹는, '구조 조정'의 대상에 불과하다. 기업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대학들의 지상 목표는 대학 본연의 가치에 걸맞는 연구자, 사회인의 양성이 아닌 기업 인재상에 걸맞는 인물의 양성이다. 거기에 정의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첨병이었다. 대학에 사복경찰이 깔리고, 학생회장이 감옥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드는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은 '정의'를 부르짖었다. 하지만 학생들도 이제 더 이상 정의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사회 문제에 대해 대

자보를 붙이거나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 '선동'이라고 폄하받는 일은 흔하다.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지식과 일은 곧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돼 외면 받는다. 대학생의 열정은 세상이 아닌, 기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학교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도 비교적 중심을 잡아왔다.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출범시키고, 중대 사안에 대해 구성원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적립금을 쌓기보다는 이를 교육과 연구에 투자해왔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오늘날 재정 위기와 그에 따른 혁신 필요성이라는 변화의 기로에서 있다. 올해로 예정된 총장 선출과, 대학가의 화제가 되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구조 개혁안이라는 변수까지 합치면 우리학교의 역사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시기다.

대학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기업의 논리, 천민자본주의적 논리에 대학이 어떤 지향점을 제시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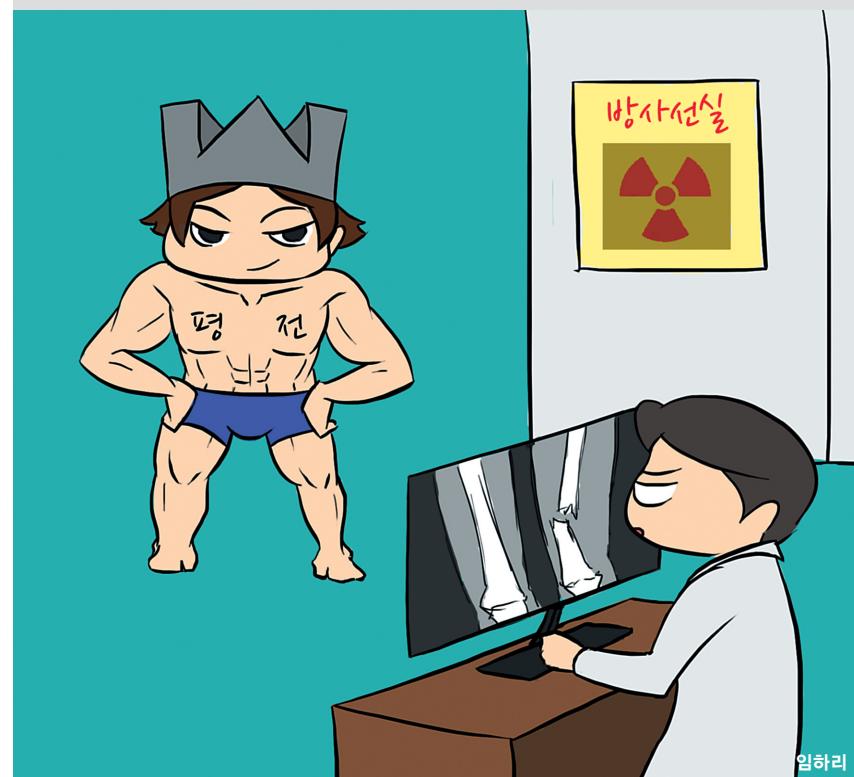
재정수익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이 시기에 걱정이 되는 점은, 우리학교도 '기업화'라는 극약을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겨울 논의된 혁신안에서는 장학금 액수를 '현실화' 한다는 명분으로 '조정안(실상은 삭감안)'이 제시되기도 했고, 프랜차이즈 업체를 적극적으로 학내에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등록금 논의에서는 인상에 대한 당위성이 있었음에도, 대학본부 측이 일방적인 인상안을 제시해 구성원과의 '불통 논란'에 휩싸여 논쟁 끝에 결국 동결되기도 했다. 교강사 수는 줄어들고, 대형 강의는 대폭 증가했다. 학교가 실제로 기업에 인수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화로 이끌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말하면 이것은 기우(杞憂)일까.

대학은 자유롭게 어떤 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비단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기업의 논리, 천민자본주의적 논리에 대학이 어떤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학교가 고민해야 할 숙제다.

만평

겉은 멀쩡한데 ...

무대 안전 'D' 등급 받은 평화의 전당



'비방' 아닌 '비판' 제기돼야

와글와글 경희

이승연
(기자)

지난 13일 우리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쿠플라자의 익명 게시판에 '세월호 진상 규명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총학생회(총학)가 세월호 사태를 '안전'의 시각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못마땅하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골자였다.

글에는 순식간에 28개의 댓글이 달렸다. '시위를 주도하는 것, 생각 좀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라는 본문에 공감하는 댓글부터 '사실관계도 모르면서 총학을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총학을 응호하는 댓글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몇몇 댓글들은 기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논리도 없이 폄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빨갱이', '좌의 좀비'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을 깎아내리기 급급했고, 더 이상의 대화가 이어질 수 없게 만들었다.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구성원 간 소통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당연한 말이지만,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닌 진전한 비판이 유지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진다. 비록 '익명'의 공간이지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학내안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

취재수첩

강규연
(기자)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에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 사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배경에는 뿌리깊은 안전 불감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신문은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 안전 문제를 다뤘다. 이에 따르면 2011년, 무대 위에 설치된 음향 반사판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학본부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물론 대학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복잡한 행정 절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음향 반사판이 철거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대학본부가 안전문제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드러낸다.

또한 화학 약품과 실험 장비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큰 공과대학과 전자정보대학의 방화문 관리 실태도 알아봤다. 기자가 실제로 직접 방화문을 점검했을 때, 소화기나 무거운 물건으로 방화문이 닫히지 않게 막아놓거나, 아예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전사고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큰 사고가 우리학교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모든 경희 구성원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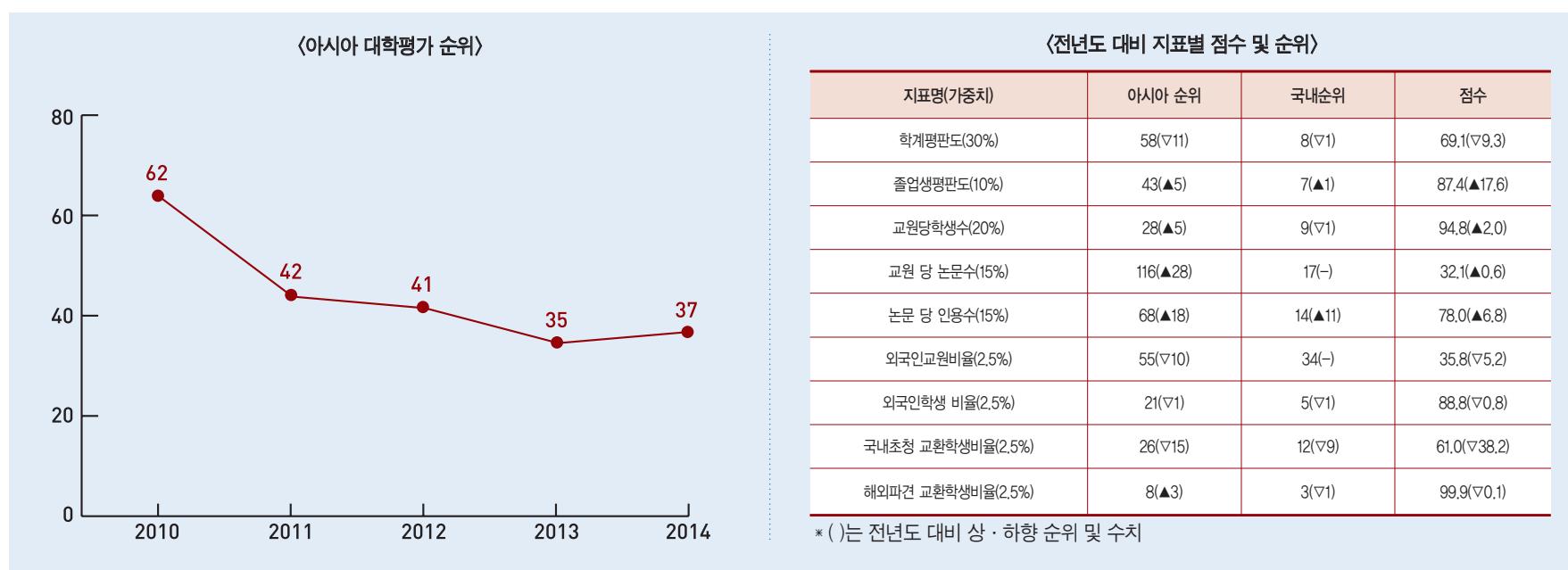
사고 발생시 피난 통로로 사용될 복도에는 각종 장애물이 쌓여 있었다. 기자는 건물을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이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모두 화재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일어난 각종 사고 때문인지, 단과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생각해보니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직접 방화문을 점검하다보니, 계속 열고 닫는 불편함과 소음 때문에 구성원들 대다수가 방화문을 열어놓는 것도, 여기에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점도 이해는 갔다. 하지만 방화문이 평상시에는 거주장스러울지 몰라도 실제 상황이 되면 화재의 확산을 막고, 유독가스 누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다행이라고 느낀 점이 있다. 인터뷰를 했던 학생들이 하나같이 '저 문이 방화문이다'라고 소개하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문이 닫혀 있어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방화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자 '그럼 닫고 다녀야겠다'며 납득했다는 점이다. 이를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안내와 교육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전사고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 대학본부를 떠나서 대다수의 구성원은 학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모두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하다.

캠퍼스 내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구성원이나 이를 관리하는 대학본부 어느 한쪽의 안전의식만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큰 사고가 우리학교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모든 경희 구성원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때다.



〈전년도 대비 지표별 점수 및 순위〉

지표명(기준치)	아시아 순위	국내순위	점수
학계평판도(30%)	58(▽11)	8(▽1)	69.1(▽9.3)
졸업생평판도(10%)	43(▲5)	7(▲1)	87.4(▲17.6)
교원당 학생수(20%)	28(▲5)	9(▽1)	94.8(▲2.0)
교원 당 논문수(15%)	116(▲28)	17(–)	32.1(▲0.6)
논문 당 인용수(15%)	68(▲18)	14(▲11)	78.0(▲6.8)
외국인교원비율(2.5%)	55(▽10)	34(–)	35.8(▽5.2)
외국인학생 비율(2.5%)	21(▽1)	5(▽1)	88.8(▽0.8)
국내초청 교환학생비율(2.5%)	26(▽15)	12(▽9)	61.0(▽38.2)
해외파견 교환학생비율(2.5%)	8(▲3)	3(▽1)	99.9(▽0.1)

행 · 재정 혁신안,
본격적인 논의 시작
교수의회 서울지회
“총장, 직접 소통해야”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지난해 12월 발표된 행 · 재정발전계획안에 대한 ‘연구 TF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정책원장과 구성원 대표, 대학본부(교무처, 연구산학협력처, 학생지원처, 사무처) 부서별 대표들이 참여해 오는 20일 국제캠퍼스에서 첫 회의를 가진다. 회의는 지난 2월 행 · 재정발전계획안 발표 이후로 논의된 사안들의 심의를 진행해 추진 계획을 확정한다.

미래정책원 남순건 원장은 “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은 오는 6월부터 바로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다만 자율예산과 자율운영제도에 관한 사안은 내년도 예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아닌, 방학에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통 결과는 교무위원회와 단과대학 학장을 중심으로 알릴 예정이다.

혁신안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수의회 서울지회는 지난 13일 전체 교수들에게 보내는 메일을 통해 “총장은 지난 3월 우리학교 재정이 우려와 달리 건실하고,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5월 중순이 되도록 올해 예산을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심각하고, 단과대학 예산이 삭감됐으며, 교수 채용도 중단된 사태”라며 총장과의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총장 선출 제도를 범인에서 선출하는 현행 제도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신임투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회는 특히 우리학교 평의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의의를 제기했다. 현재 평의원회는 교수대표 8명, 직원대표 5명, 학생과 동문 대표 각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일에 따르면 “21명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 대표가 8명에 불과해 대학본부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어렵다”며 “평의원회 교수 대표 비율이 95%인 서울대와 달리 교수의 발언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졸업생 평판’ 큰 폭 상승 … ‘교원당 논문’ 최저

2014 조선일보 · QS 아시아 대학평가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지난 12일 발표된 ‘2014 조선일보 · 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가 국내 순위 8위, 아시아 순위 37위로 각각 1계단과 2계단 하락했다. 9개 평가지표 중 5개 지표의 순위가 떨어졌다. 반면 졸업생평판도는 큰 폭으로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순위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학계평판도 점수의 하락이다. 학계평판도는 평가점수에서 가중치 30%로, 단일 지표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학교는 지난해에 비해 점수로는 9.3점, 아시아순위는 11계단 하락했다.

‘학계 평판’ 순위하락에 영향

이번 학계평판도 지표에서 성균관대(8.4점 상승)와 한양대(6.4점 상승)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대학이 하락했지만, 우리학교의 하락폭이 가장 커졌다. 때문에 100점으로 아시아순위 1위를 기록한 서울대와의 편차는 30.9점, 국내대학 5위를 기록한 성균관대와는 26.6점의 점수차를 보여 상위권 대학교의 편차가 더 커졌다. 미래정책원 측은 “학계평판도는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마다 점수의 편차가 크다”며 “특히 학계 평판도 설문 참여자 중 북미나 유럽지역 학자들이 많았고, 인문 · 사회계열보다 이공계열의 참여가 두드러져 우리학교의 강점이 설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고 분석했다.

하지만 학계평판도 결과를 단순히 ‘설문조사’의 문제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연구영역 2개 지표, ‘교원 당 논문수’와 ‘논문당 인용수’ 모두 상승했다. 연구영역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누적실적으로 평가하는데, 특히 국제논문 수 실적이 전년대비 17.6% 증가했고 논문당 인용수는 약 38% 늘었다.

교원 당 논문수 116위

그러나 여전히 교원당 논문수는 국내 대학 17위, 아시아순위 116위로 타 대학에 비해 부진한 상태다. ‘논문당 인용수’ 역시 국내대학 중 14위, 아시아 순위 68위로 나타났다. 단순 양적지표인 교원당 논문수는 차치해두더라도, 연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논문당 인용수에서 여전히 다른 상위권 대학과의 편차가 크다. 때문에 현재 우리학교의 연구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영역 지표는 5년 누적치를 사용하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임교원을 대폭 늘리고, 논문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이전인 2008년 수치가 제외되고, 2013년 수치가 포함돼 발생한 상승이라는 평가도 있다. A 교수는 “연구시설을 비롯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연구 영역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대학 행 · 재정 발전계획안

에 연구와 관련된 지원과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영역 지표변화 추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만 졸업생 평판도가 크게 상승해, 취업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학교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지난해 발표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연계 취업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제캠퍼스(국제캠) 78.8%(3위), 서울캠퍼스(서울캠) 73.1%(4위)를 기록한 이후 우리학교 취업률은 2010년 국제캠 57.9%(9위), 서울캠 56.6%(13위), 2011년 국제캠 54.8%(14위), 서울캠 54.1%(17위)를 기록하며 점차 하락세를 보여왔다. 졸업생 평판도 점수가 17.6점으로 한양대(19.9점 상승), 성균관대(17.2점 상승)와 더불어 큰 폭으로 상승한 우리학교는 국내순위 7위, 아시아 순위 43위를 기록했다.

‘국내초청 교환학생’ 17계단↓

하지만 미래정책원 측은 평가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만을 제시하는 것을 경계했다. 학계 평판도와 같은 맥락으로 설문조사대상에 아시아지역, 특히 우리나라 인사담당자가 많이 참여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내대학의 성적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밖에 교원당 학생수는 아시아 순위가 5계단 상승해 28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교원비율은 아시아 순위 55위로 전년 대비 10계단 하락했는데, 전임교원채용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하락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학생비율 역시 아시아 순위 21위로 1계단 하락했다. 국내초청 교환학생 비율은 17계단 하락한 아시아 순위 29위로 국제화영역에서 가장 큰 순위하락을 보였다.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한 아시아 순위 10위로 나타났다.

한편 학문 분야별 평가에서는 생명과학 · 의학 분야에서 아시아순위 39위로 국내대학 중 7위로 가장 선전했고, 인문 · 예술 분야(52위), 사회과학 · 경영 분야(63위), 자연과학 분야(91위)가 100위권 안에 들었다. 공학 · 기술 분야는 100위권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2014 조선일보 · QS 아시아 대학평가 평가지표 및 방법

올해로 6년차인 ‘2014 조선일보 · QS 아시아 대학평가’는 491개 아시아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4개 영역 9개 지표로 평가했다. 지표는 학계 평판도(30%), 교원당 논문수(15%), 논문당 피인용 수(15%), 교원당 학생 수(20%), 졸업생 평판도(10%), 국제화(10%)는 외국인 교원비율(2.5%), 외국인 학생 비율(2.5%), 해외로 나간 교환학생(2.5%), 국내에 들어온 교환학생(2.5%) 등으로 구성된다. 학계 평판도는 세계 학자 4만337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본인의 전공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실적을 보인 대학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평가했다.

이밖에 교원당 학생수는 아시아 순위가 5계단 상승해 28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교원비율은 아시아 순위 55위로 전년 대비 10계단 하락했는데, 전임교원채용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하락해

동서의학대학원 2014학년도 후기 신입학 및 편입학 모집

▣ 모집학과 및 학위과정

모집학과(전공)	학위명	세부연구분야	모집과정	
			석사	박사
동서의학과	한의학/의학전공	한의학/의학 석 · 박사	동서협진/통합의학 줄기세포학 신경세포학	○ ○ ○ ○
	대체보원의학전공	대체의학 석 · 박사	자연보법학 자연보법 자연의학	○ X ○ X
동서의과대학	식의약소재제작전공	의과학 석 · 박사	소재화학/생유기화학 식물소재생화학/생화학 분자생물학/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생물학	○ ○ ○ ○
	한의과학전공	한의학 석 · 박사	신경과학/임상해부학 면역/생리생리학	○ ○ ○ ○
의학 영양학과	의학영양학/ 임상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 석 · 박사	질병영양/(한방)임상영양학 예방영양/보건영양학 영양영양학	○ ○ ○ ○

▣ 모집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형안내	2014.05.01.(목) ~ 05.21.(수)	http://gsm.khu.ac.kr
2. 원서접수	2014.05.07.(수) ~ 05.21.(수)	우편(방문)접수, 이메일접수
3. 서류제출	2014.05.07.(수) ~ 05.21.(수) (서류제출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제외)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 (원서접수 후 홈페이지 게시)
4. 전형일시	2014.06.14.(토) 10:00	국제캠퍼스(수원) 지정장소
5. 합격자 발표	2014.06.19.(목) 16:00 예정	http://gsm.khu.ac.kr
7. 합격자등록	2014.07.01.(화) ~	획정 일자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자세한 모집요강은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http://gsm.khu.ac.kr>) 참조

※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석사과정 신 · 편입생 모집안내

1. 학과소개

글로벌 경영학과
- 21세기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는 실무중심의 국제화 교육
- 학제의 권위자를 비롯해 경영 현장의 전문가를 초빙한 교수진 구성
- 재학생과 출입장을 언제나 글로벌 리더 양성

스포츠 경영학과
- 스포츠산업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전문 스포츠경영인 양성
- 국제 스포츠 시장 및 스포츠 기업 경영 전문가로 교수진 구성

건설안전 경영학과
- 고도의 이론과 실무교육으로 선진화된 건설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 산전 건설 기술 및 안전경영능력 배양
- 원우회 활성화를 통한 인력네트워크 구성

2.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석사과정 **자격** **전형방법**

신입생 **가.**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2014년 8월 졸업예정자
편입생 **가.**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1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
나. 3과목 이상 수강하여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서류심사 및 면접

3. 전형일정

원서 접수 2014.04.28 (월) ~ 06.01 (일)

접수 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a href="http

보도

세월호 참사, '애도'를 넘어 '행동'으로

권오은 기자 typhoon11@knu.ac.kr
백승철 기자 scho1357@knu.ac.kr

지난 15일 스승의 날. 학내에는 카네이션 증정식이나 특별한 기념행사가 없었다. 예년에 축제기간과 맞물려 활기찼던 우리학교의 분위기는 세월호 참사 발생한 달과 맞물려 차분함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 14일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183 명의 교원이 '스승의 날을 반납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이문재(후마) 교수가 초고를 작성하고, 이틀에 걸쳐 후마 교원들의 의견과 서명을 받아 완성됐다.

성명서 내용에는 '세월호 참사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교육을 통해 사회가 건강한 시민들로 구성됐다면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난 선박회사의 부도덕성과 정부의 무능, 언론사의 보도논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교육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공감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재점검하고, 협동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극대화하면서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라며 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작성에 참여한 김진해(후마) 교수는 "학생들 볼 면목이 없어서 성명



지난 15일 열린 '5.15 대학생 도심행진'

서를 발표했다"며 "이런 비참한 상황에 서 교육이 무엇인지를 근원에서부터 사회전체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각 교원들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사회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움직임 역시 활발했다. 지난 13일부터 '세월호 참사를 주모하는 경희인모임'이 구성됐다. 이후 지난달부터 세월호 참사를 주모하며 침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만히 있으리'와 함께 청운관 1층에서 세

월호 참사 실종자·생존자·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종자 구조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에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1,367명이 참여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15일에는 경희민주단체협의회 주최로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세월호 추모 경희인 촛불집회'가 진행됐다. 촛불집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처음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경희인모임'을 제시한 정경대학 김민정(정

치외교학 2012) 회장은 "허무하게 귀한 목숨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밝혀 반복되지 않도록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 더 이상 보고만 있지 말자"고 말했다. '기만하지 않으라' 김준호(정치외교학 2013) 군 역시 "어머니로부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주 뒤에 동생이 그 배에 탔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참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외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15일 저녁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 행동을 위한 연설회'가 주최한 '5.15 대학생 도심행진'이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됐다. 우리학교를 비롯해 경기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성공회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신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 학생 등 다양한 단체에서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세월호 관련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행진은 마로니에 공원에서부터 시작해 종로를 거쳐 보신각까지 이어졌다.

▶ 1면에서 이어짐

김 부처장은 "규정상 공연장은 3년마다 무대 안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공연장이 다소 한가한 올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재 점검을 받을 예정"이라며 "행사도 자주 열리고, 우리학교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건물이 만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경우에는 각종 화학약품과 위험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이 많아 화재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방화문이 평상시 열려 있고, 학생자치시설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을 가진 취사도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신문이 직접 다수의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보대학, 공과대학과 동아리 방이 밀집돼있는 학생회관을 점검한 결과 90% 이상의 방화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22시 30분에 전자정보대학의 모든 방화문 개폐 상태를 점검한 결과 40



공과대학 건물의 열려있는 방화문

개의 방화문 중 35개의 방화문이 열려있었다. 심지어 방화문 중 1개는 종이상자로 고정돼있었다. 문 잠금장치가 걸려있어 문을 닫을 수 없게 돼 있는 것도 2개나 있었다.

공과대학은 49개 중 30개의 방화문이 열려있었고, 소화기로 8개의 문이 고정돼있었다. 잠금장치가 걸려있어 제대로 닫을 수 없는 문도 7개였다. 잘 닫혀있

는 문은 4개에 불과했다. 학생회관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총 22개의 방화문 중에서 닫혀있는 문은 하나도 없었다.

국제캠 학생지원처 신봉규 계장은 "학생회관에 오는 학생이 많은데 계속 방화문을 연다"며 "직원들이 방화문을 닫는 일만 할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화문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

식도 부족하고 정보도 없는 실정이었다. 박종현(기계공학 2010)군은 "어떤 문이 방화문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냥 문이 닫혀있어서 닫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방화문을 늘 닫힌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유지혜(의류디자인학 2014) 양은 "방화문이 너무 많아 닫아놓는 것이 이동시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는 방화문에 대한 설명이나 그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캠 관리팀 김학정 팀장은 "방화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방화문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동아리 방에 있는 휴대용 가스렌지, 난방용품 등 취사도구와 전열기도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 중 하나다. 학교 내 취사도구 보관은 소방기본법 제 12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다. 관리팀은 이에 대해 동아리 방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꾸준히 발송해왔다.

"친구 만들어 준 '술 게임' 문화"

제 17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지난 15일 '제 17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크라운관에서 열렸다. 우리학교 국제교육원과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총 38개국 1,232명의 외국인이 지원했고, 예선을 통해 15명의 참가자가 본선에 올랐다.

국제교육원 김중섭 원장은 개회식에서 "한국"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로 '치맥'이 하나의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이는 점차 외국인들의 관심이 한국의 상징물보다는 한국인의 일상에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며 "이번 대회가 한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대회 주제인 '한국을 소개합니다', '한국 문화 체험'에 대해 자신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특별상을 받은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이브 씨는 "지난해 생전 처음으로 눈을 봤다"며 "아름다움에 매료돼 10분 동안 눈 내리는 모습을 구경했다"는 설명과 함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 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의 대상은 우리학교 국제교육원에서 공부중인 카자흐스탄 출신 압사득 오네계 씨가 거머쥐었다. 그는 '독특한 한국문화 체험'을 주제로 동아리 활동 중 경험한 '술 게임' 문화로 한국인과 친해진 경험을 소개했다. "무슬림이라 술을 마시지 못하지만 술자리에서 하는 게임은 정말 재미있다"며 "타국에 와서 외롭던 중에 게임을 하면서 친구를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인 최상진(국어국문학) 교수는 "여기 참석한 모두가 대상감"이라며 "어찌 보면 한국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 부분을 재치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학 군장학생 모집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7세 남성
- 군·치의과·수의과 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 지원 가능
- 학력 : 4년제 대학 학군협약이 되어 있는 1, 2, 3학년 친권자의 동의와 재정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자

지원서접수

- 접수기간 : 5월1일(목)~ 5월30일(금)
-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접수 → 서류제출(인사사령부)

선발시험

- 1차 : 필기평가(국사과목 포함), 서류전형
- 2차(최종) : 대학성적, 수능성적,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복무기간

- 의무복무기간+장학금 수혜 기간 추가 복무
 - ROTC 임관 시 : 6년 4개월
 - 학사장교 임관 시 : 7년

대우 및 특전

- 대학 4년 등록금 전액 지원(입학금 포함)
- 국내 민간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 기회 부여(장기복무선발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기회 부여(장기복무선발자)

문의처 및 모집안내

- 각 대학 학군단
- 인사사령부 선발담당관 : 02-505-7144, 042-550-7144
-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상을 이끌어간다"

최고를 끌어올리는 자의 선택!
육군간부
장교/부사관 모집안내 홈페이지 (육군모집)
www.goarmy.mil.kr

▶ 1면에서 이어짐

한편 인터뷰 당일이 세월호 참사 30일째로,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들이 '스승의 날을 반납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참사에 대해 조 총장은 폐륜적 의식수준이 드러났다며 교육기관으로서 반성할 필요성과 함께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는 교육기관이 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미래리포트를 통해 지금 우리학교의 문제는 무엇이고, 향후 우리학교가 어떤 대학이 될 것인지를 구성원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우리신문이 조인원 총장과 진행한 인터뷰의 일문일답으로 지면 사정상 존칭은 생략했다.

과도한 정원은 결국 우리학교가 갖고 있는 기본 역량을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과는 별개로 우리학교의 현실에서 적정 정원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정원 하향조정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정원조정, 공감한다. 중장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적정 교원 수, 학생 수, 교육 시설,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희의 미래를 물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선 공감대가 필요하다. 거교적 관심과 함께 적정 규모와 기준을 만들기 위한 조사·분석 팀 발족과 공론장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정원감축으로 인한 우려와 불안은 대부분 '학과 통폐합'과 '줄어드는 등록금 수입'에 대한 것이다. 특히 치등 감축을 통해 다른 대학의 사례처럼 인문학이나 예술계 열 등 소위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에 대한 통폐합 상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

취업률과 대학의 전공 분야 존속은 별개의 문제이다. 대학이 대학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과 사회, 문명의 풍요로움을 위해 대학은 현실적 필요를 넘어서 이유가 있다. '학과 통폐합 문제' 역시 인위적인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학과 발전, 굴지의 학과, 대학원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공의 벽을 넘어서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현행 복수전공제나 자유이수제와 같은 학사제도만으로는 이런 학문간 교류에 한계가 있다. 학과간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줄어드는 등록금 수입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대학은 기본적으로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학을 운영해 가고자 한다. 재원 확충은 지난 수년간 준비해 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대



“

더 나은 인간의 길, 사회와 문명 진보를 이룰 학문과 배움, 실천의 "진정한 타월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대학의 소임이다

”

을 과반 필요' 요구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주인의식에 관한 이야기다. 당연히 주인의식은 경희구성원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특정 그룹이 주인의식과 대학의 모든 면을 독점해서는 안된다. 개인적인 소신으로 학습권에 있어서는 학생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고, 교수권이나 연구 등에 있어서는 교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업무나 대학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직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누구의 권한이 더 중요하다는 논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타자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권한은 있을 수 없다. 우리학교에는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부터 평의원회가 있었다. 대학평의원회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만큼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우리학교는 그간 지속적으로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두 주제를 놓고 고민해왔다. 이는 결국 '대학운영의 철학'이라는 문제에 달아 있다. 우리학교가 추구하는 운영 철학은 무엇이고 전체 구성원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우리 사회의 대학에 대한 기대는 개인과 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도 경제 논리에 편중된 개인의 영달과 사회발전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정된 미래가 없다. 세월호 사건의 극한적 모순에서 보았듯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대학도 변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바람인 개인의 행복과 사회 안녕은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 덕과 소양을 전제로 진작될 수 있다. 학문과 배움의 전당인 대학은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성취 외에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 나은 인간의 길, 사회와 문명 진보를 이룰 학문과 배움, 실천의 "진정한 타월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대학의 소임이다.

현재 준비중인 미래리포트는 지금 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고 어떤 대학이 될 것인지를 담아낼 것이다. 이를 위한 학생, 교수, 교직원이 함께 참여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 이미 우리학교는 50년 전 개교 15주년을 맞아, 경희인이 만들어가야 할 대학의 미래를 물은 바 있다. 반세기가 흘렀다. 구성원 여러분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미래대학의 타월성, 학문과 실천의 새 지평을 열었으면 한다. 우리 손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성찰의 축전'이 되었으면 한다.

학과 범인, 의료기관이 협력해 왔다. 5월 마지막 주에 단기, 중장기 재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강좌 축소, 대형강의의 증가, 전임교원 강의 비율 저조 등으로 교육 여건 저하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대학 전체 차원의 단기, 장기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소형 강의가 필요한 강좌도 당연히 많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중대형 규모도 무방한 강좌가 있다. 그 필요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온·오프라인 강좌 결합도 21세기 대학이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전체 강좌 수도 같은 맥락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학본부는 이런 현안과 함께 대학의 발전적 노력이 학생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원조정에 공감한다. 중장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적정 교원 수, 학생 수, 교육 시설,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희의 미래를 물었으면 한다

”

우리학교만큼 대학과 구성원 간 소통을 강조하는 대학도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소통부족이 자주 지적된다. 특히 갈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모호해 문제가 발생하면 '총장'의 답변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소통,'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간 여러 교내 매체, 각종 회의, 간담, 면담, 행사, 순방, 민원처리 제도 강화 등을 통해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소통에 관한 우리 인식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 소통은 공감과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지,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다.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조화롭게, 그리고 성숙하게 조율해가는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으면 한다. 특히 '민주적인 대학'에선 '총장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져선 안 된다. 분권과 책임이 중요하다.

총장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아가 '분권'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학교 전체업무 중 총장의 결재권에 해당하는 것은 0.3%에 지나지 않는다. 담당부서와 제도 속에서 사안이 적

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취임 후 자율운영제를 비롯 여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보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총장의 결재 범위와 제도 혹은 부서가 스스로 결정할 부분을 명확히 해나가겠다.

구성원 중에는 '총장선출제도' 자체가 변해야 이런 의사결정구조가 바뀔 수 있는 입장도 있다.

총장선출방식에는 직선제부터 간선제, 우리학교와 같은 이사회선임 등 대학마다 다양한 예가 존재한다. 최종적으로 이 사회가 의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선출방식은 입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중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핵심은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의 타월성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또 구성원으로부터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철학을 정립해나가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나갔으면 좋겠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다양한 성원으로 구성돼 대학의 주요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교수의회 서울지회가 내부구성원에게 발송한 메일내용에는 '평의원회내 교수비

국제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박사 과정)

① 모집분야

국제통상협력학과 /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경영학과

② 모집인원

석사과정 00명 / 박사과정 00명

③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④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40%) + 면접(40%) + Writing Test(20%)
나. 해외거주 지원자는 별도 전형

⑤ 모집일정

가. 서류접수 : 2014.05.19(월) ~ 05.30(금)
나. 면접전형 : 2014.06.14(토)

⑥ 제출서류

[공통사항]

- 입학원서 (소정양식, 자기소개서 양식 포함)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평균, 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 주천서 2인 각 1부식 (국문기준, 자율양식) (피추천인을 알게 된 경위 및 기간 / 피추천인의 장단점 / 기타사항 등 포함)
- 출입(예정)증명서 1부 (학위등록번호 기재)
- 반명함판 사진 1매 (3cm*4cm)
- 전형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접수 시 온라인 입금)

[해당자에 한함]

- 각종 공인영어성적 소지자 기산점 부여, 성적 사본 1부(원본 대조 필)
- 국문·영문 번역 공증서(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영문이력서(자유양식) -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 영문학업계획서(자유양식) -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⑦ 원서접수

- E-mail 접수 : gsp@khu.ac.kr (지원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이미지로 첨부하여 보내야 함)
- 우편접수 :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봉투에 '입학원서 제출' 제재) 要

문의처 | 국제대학원 행정실 Tel : 031-201-2146~9, Fax: 031-204-8120 / Homepage : <http://gsp.khu.ac.kr>, E-mail : gsp@khu.ac.kr

2014학년도 1학기 정기 강의평가 실시안내

2014학년도 1학기 '정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정기 강의평가' 결과는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1. 기 간 : 2014.06.02(월)~06.26(목)

2. 대 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3. 대상강좌 : 하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4. 성적 열람 및 공시 기간 : 2014.07.01(화) ~ 07.03(목)

5. 정기 강의평가 실시 여부 : 다른 성적 조회 기간

※ 강의평가 실시 일정 : 1학기 ~ 2014.06.02(월)~2014.06.24(화), 2학기 ~ 2014.06.27(금)~2014.06.30(월)

※ 강의평가 실시 학期 : 2014.07.01(화) ~ 2014.07.03(목)

6. 정기 강의평가 실시 방법

1) 종합강의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2)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3)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 자유권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4) 강좌별로 화면에서 평가내용과 과목이 [미설시]에서 [설시]로 변경된 것 확인

5) 실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6)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클릭

7)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8)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 강의평가를 공정성으로 위하여 이정으로 진행됩니다.



정지호
사학 교수

이 현재는 동아시아(한중일) 내셔널리즘의 형성 기원을 비교사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탈민족주의화가 가속화돼가는 시점에서 동아시아 내셔널리즘의 형성 기원을 비교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동아시아와 내셔널리즘 ①

연재순서

- 1회 : 내셔널리즘의 형성 - 일본의 경우
- 2회 : 내셔널리즘의 형성 - 중국의 경우
- 3회 : 내셔널리즘의 형성 - 한국의 경우
- 4회 : 미래지향적 역사 논의를 위해

“

근대 초기 서구의 충격이 동아시아 지역을 강타했을 때 일본이 가장 먼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근대국가를 건설했다. 그 후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건설의 양태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

‘근대 일본’, 신격화된 천황 통치 형태로 성립

세계화에 대한 유럽의 대응이 지역통합이었던 것과 달리 동아시아는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 영토 분쟁 등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면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했다. 이 공동체=민족은 자유로운 주권을 가진 주체로서 수평적 관계로 상정돼 그 안의 불평등과 수탈을 보이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단일성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화하는 아이며 민족 주의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의 초석은 각국의 내셔널리즘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이해를 심화, 확산시켜 극복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점에 이 현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일본 내셔널리즘의 형성 문제를 살펴본다. 근대 초기 서구의 충격이 동아시아를 강타했을 때 일본이 가장 먼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근대국가를 건설했다. 그 후 동아시아는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건설의 양태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근대라는 용어는 자국 내의 사회경제 체제의 방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구 열강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지배 구조 속에 포섭돼 갔다고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근대란 네거티브 요소를 담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제 지역이 식민지 내지는 반식민지로 전락한 가운데 일본만은 국민국가 건설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제국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 배경에는 일본이 역사적으로 중화세계 질서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는 조공과 책봉에 의한 화이적(華夷的) 세계관을 근간으로 이뤄졌다. 조선과 류큐(琉球), 말라카 등 동아시아의 제국이 중화세계 질서 내에 포섭돼 있었던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달랐다. 일본은 무로마치의

장군 막부시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가 명나라 영락제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일본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일본의 국학자들은 천황을 두고 중국 황제에게 책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것은 훗날 천황제 국가의 건립에 중요한 자원이 된다. 사상적 측면에서도 주자학이 전래됐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 수양으로 받아들여졌을 뿐 체제 이념으로 중시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네덜란드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들어온 서양 학문 즉 ‘난학’(蘭學)이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중화세계 질서의 주변에 있었다는 점과 난학을 통해 이미 서양 사정을 접하고 있었다는 점 등은 일본으로 하여금 서양의 충격에 대한 대응을 달리 할 수 있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겠다.

천황제 국가

일본사에서 천황이라는 칭호가 처음 등장한 것은 7세기 말이지만, 일본 국민 모두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이다. 그 이전까지

는 소수의 지배자와 국학자에게만 의미가 있었던 천황이 ‘일본’이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존재로 발명됐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신정부가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고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일본’은 천황제 국가로 출발한 것이다.

에도 시대 일본 열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일본인’이라는 의식보다는 자신이 속한 ‘번’의 속민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이라는 동질의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근대 이후 ‘일본’이라는 집단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메이지정부는 천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천황은 전국을 순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자신의 통치가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켰다. 일본은 신이 다스리는 신국으로 미화됐으며, 만세일계의 천황에 대한 충성은 마치 고대부터 일본인의 전통이었던 것처럼 강조됐다. 이른바 전통의 발명이다.

메이지 신정부는 천황을 최고 신관으로 하는 ‘국가신도’를 제정해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은 최고의 명예로 선전했다. 또한 메이지유신을 전후로 해서 신정부를 위

해 싸우다 순국한 전사자의 영혼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야스쿠니신사는 천황제 국가인 일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유익한 장소였으며, 오늘날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다.

메이지 신정부는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징병제를 실시했으며, 식산 흉업을 통해 근대 공업의 육성에 주력했다. 또한 6세 이상의 모든 남녀는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천황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봉사를 가르치는 것을 주안으로 삼았다.

메이지정부의 개혁은 많은 모순을 드러냈지만 단기간에 입헌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국가를 창출하는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일본 천황제 국가의 절대주의적 권력체계는 대내적으로는 봉건지주층이나 부르주아지를 보호, 육성하면서 자본주의를 확립시켜 나갔으며, 대외적으로는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최고 국책으로 삼아 영토 확대를 도모했다. 이는 서구 열강에 대한 종속과 주변 아시아 제국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 이면에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탈아입구’(脫亞入歐)로 상징되듯이 서양숭배 및 아시아 멸시관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신격화된 천황이 국민(업적하게는 신민)을 다스리는 형태로 성립됐다. 천황제 국가를 표방한 이 ‘상상의 공동체’는 봉건지주층과 부르주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동의’를 획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시아의 식민화를 통한 민족차별의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에는 과거의 ‘영광’을 꿈꾸며 국가에 대해 맹목적으로 동일화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더 이상 내셔널리즘의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방식이 아닌 방법의 성찰이 절실히 요구된다.



메이지 헌법의 선포를 담은 토요하라 치카노부(豊原周延)의 그림(1889)



매년 전 세계 에스페란토 사용자들이 모이는 국제 에스페란토 대회 개막식

에스페란토 사용자(에스페란티스토)들이 수업에 참가해 수강 학생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도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에스페란토라는 언어의 흥륭함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이 언어를 통해 보다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는 오로지 영어라는 특정 민족어를 통해 바라보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남으로써 젊은이들이 보다 넓은 세계관을 갖게 하는데 매우 유익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언어는 문자, 발음, 강세, 어휘, 문법의 요소로 구성돼 있는데, 에스페란토에서는 문자로 로마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를 익힐 필요가 없다. 발음은 ‘1

자 1소리’ 원칙에 따라 발음기호가 존재하지 않으며, 강세는 예외 없이 그 단어의 끝에서 두 번째 모음에 두기 때문에 별도로 강세 위치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어휘는 접두, 접미사를 활용해 적은 어휘 숫자로 다양한 표현의 어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부담도 그리 크지 않다. 에스페란토 어휘는 11개의 언어의 공통된 부분을 발췌해 만들었기에 이미 다른 언어를 익힌 사람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원공부에 도큰 도움이 된다.

문법은 자연어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체계를 갖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계를 갖고 있어, 다른 언어 학습의 기초라 말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수강 학생은 에스페란토를 배우고 나서 언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고, 문법 용어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에스페란토 강의 방법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 외국인과의 대화 그리고 작문으로 진행된다. 문법 자체가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문법 전체를 배우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외국인과의 대화를 통해 회화 능력 배양과 함께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를 체험하며, 페리스북으로 배운 부분을 활용해 작문 연습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외국 에스페란티스토들을 친구로 삼을 수도 있다.

에스페란토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언어에 대한 자신감,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세계관의 확립 그리고 세계 친구 만들기 등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해외 여행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돼, 가는 곳마다 그곳 에스페란토 사용자들의 환영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문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과 에스페란토로 진지한 대화를 하는 값진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페란토 강의를 통해 많은 실력을 갖는 에스페란티스토들이 배출돼, 국내외 에스페란토계에서 경희 출신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지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

교양 리포트 ⑧ – 국제어 에스페란토

진정한 ‘국제어’는 무엇인가?



이중기
후마니티스칼리지 교수

‘국제어 에스페란토’는 자유이수 과목 중 외국어에 속해있는 ‘언어 과목’이다. 에스페란토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언어에 대한 자신감,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다.

우리학교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위한 공적 실천의 장’으로서 대학의 ‘지구적 존엄’의 구현을 정신으로 삼고 있다. 그 ‘지구적 존엄’은 각 민족의 언어를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인 1887년 유태계 폴란드 의사에 의해 창안된 ‘에스페란토’는 현재 13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공통어다. 에스페란토가 추구하는 세상은 ‘1민족 2언어주의’이다. 즉, 자기 민족끼리는 그 민족의 고유 언어로, 언어가 다른 민족 간에는 중립적이고 배우기 쉬운 언어 ‘에스페란토’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우리학교를 비롯해, 한국외대, 단국대, 원광대 그리고 인드라망 불교대학에 에스페란토 강의가 개설돼 있다. 한 학기의 수업을 통해 수강 학생들은 에스페란토의 기본 문법을 완벽하게 터득 한다. 또한 강의 기간 동안 3~5명의 외국

에스페란토 사용자(에스페란티스토)들이 수업에 참가해 수강 학생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도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에스페란토라는 언어의 흥륭함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이 언어를 통해 보다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는 오로지 영어라는 특정 민족어를 통해 바라보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남으로써 젊은이들이 보다 넓은 세계관을 갖게 하는데 매우 유익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언어는 문자, 발음, 강세, 어휘, 문법의 요소로 구성돼 있는데, 에스페란토에서는 문자로 로마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를 익힐 필요가 없다. 발음은 ‘1

자 1소리’ 원칙에 따라 발음기호가 존재하지 않으며, 강세는 예외 없이 그 단어의 끝에서 두 번째 모음에 두기 때문에 별도로 강세 위치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어휘는 접두, 접미사를 활용해 적은 어휘 숫자로 다양한 표현의 어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부담도 그리 크지 않다. 에스페란토 어휘는 11개의 언어의 공통된 부분을 발췌해 만들었기에 이미 다른 언어를 익힌 사람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원공부에 도큰 도움이 된다.

문법은 자연어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체계를 갖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에스페란토 강의를 통해 많은 실력을 갖는 에스페란티스토들이 배출돼, 국내외 에스페란토계에서 경희 출신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지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



스펙만으로 취업을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지식, 기술을 의미하는 직무능력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취업시장, 직무 중심으로 재편될 것

취업의 속살 ② - 취업예정자의 이상과 현실



이종구 연구실장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대기업과 공기업 지향적인 구직자들의 취업관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마감한 2002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IMF 사태를 겪어본 한국 노동시장은 실업과 취업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지켜봤다.

IMF 사태는 한국 노동시장에 직업관을 새로 정립시킨 분수령이 됐다. 기업들의 방만한 투자와 투자구조를 탈바꿈시킨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구직자들에게는 고용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동시에 일깨우는 사건이었다. IMF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 취업시장과 직업세계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구직자들의 취업관에 고용안정에 대한 신념을 한 층 더 고착화시킨 것도 사실이었다. 이는 대기업에 취업해야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과 좋

은 복리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 아닌 결론을 팽배하게 만든 일종의 대기업병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도 함께 초래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NCS의 핵심은 각 산업체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식, 기술 등을 의미한다. 기업도 2017년부터 채용과 인사 관리 측면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니, 기업은 이미 직무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는 향후 사회가 스펙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직무능력시대를 예고하는 전조로 여겨진다. 이러한 직무능력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스펙 대신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력활동을 쌓고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직무중심으로 취업해야 한다. 그래야 평생직업은 물론 평생직장까지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구직자들의 이상은 예나 지금이나 대기업 지향적으로 흐른다. 직무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생각 대신 부속 품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마치 수능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는 풍조와 매우 흡사하다. 이는 진

학자와 구직자 그리고 사회와 국가 등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행복하지 않은 이상을 좇는 일 보다는 노동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그 직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취업관을 가져야 한다.

직무관이 정립되면 취업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줄어들 것이다. 이 간극이 없어지는 사회는 직무중심으로 일자리를 찾고 직무만족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직무제일주의로 직장을 선택하는 완전한 직무능력사회가 될 것이다.

어차피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균형이 깨진 지는 오래 됐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느 기업 할 것 없이 최대한의 슬립화가 이뤄진 지금, 구직자들을 총족시키는 채용규모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점차 우리 대졸사회가 병폐처럼 안고 있는 학벌과 외국어,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사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 채용을 하는 기업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직무능력이 강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또한 왜 직무중심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직자에게 인지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업규모를 허물어뜨리는

취업관과 직업관을 앞당기는 데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스펙으로만 취업을 하는 시대는 이상과 현실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 스펙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결정짓는 기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향후 취업시장은 직무중심으로 재편되고 이는 기업규모를 크게 고려치 않는 취업관을 정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사실 IMF 사태가 종료된 2002년 이후 기업사회는 이미 직무중심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해왔다. 다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여전히 스펙 중심으로 지원하고, 기업 역시 그것을 기반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머지 않아 채용직무에 적합한 경력을 쌓은 구직자들이 슬립화된 기업의 자리를 놓고 대학 순위와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직업의 세계에서 파라다이스는 없다. 이상은 자신이 일을 하며 전문가가 되면서 그 일에 행복을 느끼는 가운데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규모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에 몸을 담아야 하며 거기에서 직무만족의 기쁨을 얻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망해도 직무는 영속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1면에서 이어짐

샴스가 사라진 후 루미는 정신적 고통과 고독에 시달린다. 깊은 고통은 인간을 진정 고귀하게 만드는가? 루미는 샘스의 영혼 속에서 거짓 자아가 소멸되는 '파나'의 경험을 한다. 《마드나위》에 나타난 사랑의 인식론은 '신의 불꽃'인 영적 지성에 관한 '사랑의 그노시스'이다. 영적 지성은 신과 인간, 우주만물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신지학(theosophy)의 세계로 초대한다.

루미는 신적 사랑을 '빛'의 메타포로 표현한다. 이는 고대 페르시아 조명(照明)철학이 그의 작품 속에 녹아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빛'은 동녘에서 태양이 솟아오를 때의 광휘를 뜻하는 '이쉬라크' 개념으로 인간 영혼에 깃든 신지의 근원을 상징한다. 루미는 영적 지성이야말로 인간 최고의 정신이며 영원한 사랑을 생성하는 영혼의 플레로라고 고백한다.



신과의 합일을 뜻하는 수피교의 '세마' 의식

루미는 영적 지성이야말로 인간 최고의 정신이며 영원한 사랑을 생성하는 영혼의 플레로라고 고백한다

봄의 정원
by 루미
봄의 정원으로 오세요.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참여마당

이준형
경제학 2013



'국민 행복시대' 와 스노비즘(Snobbism)

스노비즘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스노비즘이란 본래 19세기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치를 때, 평민의 자식이라는 뜻의 'Sine Nobilitate'를 기입하도록 한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Sine Nobilitate의 약어가 S.nob이다.) 이 단어는 처음에는 사회적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으나 그 이후 의미가 변질돼, 세속적 기준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에게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됐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속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 경멸을 보냄과 동시에 스스로 그 반대의 인물들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스노들과 스노이 되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수많은 TV 프로그램들이 예쁘고 몸매 좋은 연예인을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그 영향으로 연예인과 같은 의모를 갖기 위해 몇몇 여성들은 고액의 성형수술을 불사한다. 언론 보도 역시 유명 정치계 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데 큰 관심을 보인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한 시도도 많이 목격된다. SNS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나 명품을 착용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닌 타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사회가 스노비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물질적 가치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스노비즘은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굳이 어려운 용어를 들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스노비즘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구성원은 항상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고, 또 비교를 하면서 남는 것은 공허함과 자신에 대한 열등감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최근의 통신 기술적 진보에 의해 더욱 심화됐다. 이에 따라 비교의 대상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그 횟수도 크게 늘어났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경향은 구성원이 받는 고로움을 증폭해왔다.

우리 사회가 스노비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물질적 가치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세속적 가치가 더 이상 타인들의 우러름을 받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광적인 열정을 일견 비상식적인 일(광적인 성형수술, 명품과 SNS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잔인한 일을 면출 수 있을지 모른다. 또한 구성원의 심리적 부담까지도 덜 수 있을 테니 모두가 '국민 행복시대'를 선거공약으로까지 내세우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노비즘의 극복,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팽배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극복이 아닐까?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

● 일 시 : 2014. 5. 26(월) 19:00

● 장 소 : 경희대학교 법학관 301호

● 주요내용

- 2015학년도 입학전형계획 안내
- 2014학년도 입시결과 설명
- 질의응답

● 문 의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2-961-9218~9

lawschool@khu.ac.kr

<http://www.khls.ac.kr>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